



*The Wildlife in Japan*

발행: 2008년 6월



〒100-8975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 1-2-2 中央合同庁舎5号館

<http://www.env.go.jp/>

© 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08

이 책자는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監修: 環境省自然環境局野生生物課

企画: 財團法人 自然環境研究センター

디자인: 株式会社 アートポスト



사진협력: 今井仁、飯田春美、岩松慎一郎、海野和男、江口欣照、川崎克美、北浦賀次、木村真敏、久保田正秀、小出可能、小林安雅、桜井淳史、菅原安、菅田隆雄、斧木創、高橋弘、中島朋成、沼田研兒、伴文彦、平澤真一、鹽田行雄、水上みさき、渡和雄、森勝彦、山本典明、矢部志朗、横田久、ナキウサギふあんくらぶ、日本自然科学写真協会



# *The Wildlife in Japan*

# 일본의 야생생물





# 많은 생명이 숨쉬는 나라, 일본.

일본에는 알고 있는 것 단으로 9만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서식, 생육하고 있습니다.

약 3,800만 ha라는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대륙과의 접속과 분단의 역사, 남북으로 길고 복잡한 지형, 풍부한 강수량, 사계절의 변화, 화산의 분화와 하천의 범람 등에 의한 교란,

그리고 농림업 등의 사람들의 생업에 의해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

생육을 위한 환경이 형성되고 그것들이 육성되어져 왔습니다.

어느 종도 긴 시간을 거쳐 길러진 소중한 존재이며

저마다 다른 종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속에서, 풍부한 생태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일본의 야생생물을 [북쪽에 사는 생물], [산에 사는 생물],

[마을에 사는 생물], [수변에 사는 생물], [아열대에 사는 생물]

로 나눠서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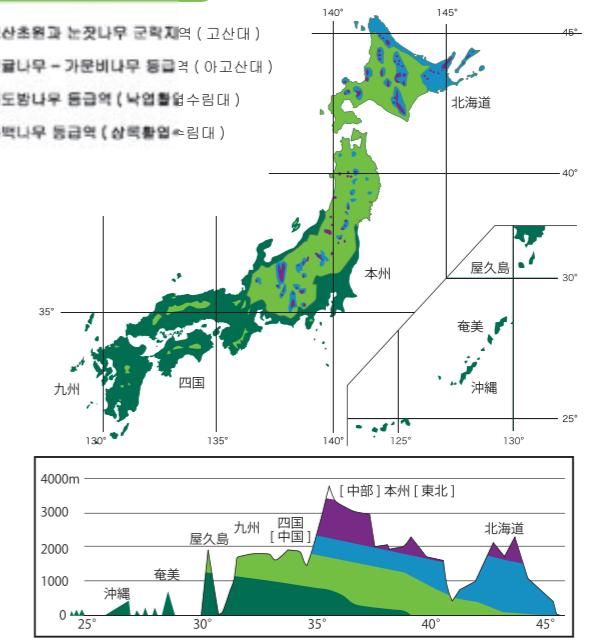


## 일본의 식물상

일본의 식생은 주로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를 반영하여, 고산대, 아고산대, 낙엽활엽수림대, 상록활엽수림대의 4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고산대에는 높잣나무, 아고산대에는 가문비나무 등의 상록침엽수, 낙엽활엽수림대에는 너도밤나무, 신갈나무 등의 낙엽활엽수, 상록활엽수림대에는 동백나무, 모밀잣밤나무 등의 상록활엽수가 우점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는 남북으로 길고 3,000m를 넘는 높이의 산맥이 있기 때문에 위도에 따른 식생의 수평적 변화에 더해, 표고에 따른 수직적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일본의 자연식생도

- 고산초원과 높잣나무 군락지역 (고산대)
- 올풀나무 - 가문비나무 등급역 (아고산대)
- 너도밤나무 등급역 (낙엽활엽수림대)
- 동백나무 등급역 (상록활엽수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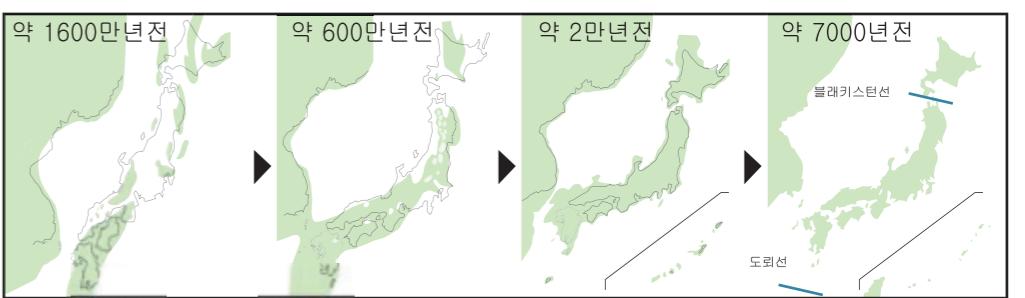
출처: 日本の植生、宮脇昭編、1977年 (北方領土、小笠原諸島を除く)



## 일본의 동물상

일본의 동물상은 유라시아대륙과의 유연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밤하기에 육지가 이어졌을 때에 대륙으로부터의 생물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대륙과의 접속과 분단의 역사를 반영하여, 야쿠시마(屋久島) · 타네가시마(種子島)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의 사이에 동물상의 큰 차이가 인정되어 도뢰선이라고 하는 생물 경계선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도뢰선 이북에서는 유라시아 대륙, 이남에서는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동물과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혼카이도와 혼슈의 사이에서도 동물상에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쓰가루해협을 생물의 분포 경계로서 블래키스턴선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米倉伸之・貝塚義平・野上道男・鎮西鶴高編 (2001)『日本の地形1総説』東京大学出版会, 297P를 토대로 작성

## 일본의 고유종

오키나와 · 아마미 · 오가사와라(小笠原) 등의 크고 작은 섬들, 다이세츠잔(大雪山) · 일본알프스등의 고산대, 비와코(琵琶湖) · 오제가하라(尾瀬ヶ原) 등 지리 ·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격리된 환경에는 고유의 생물이 많이 서식 합니다. 또한, 일본 전체에서도 고유종의 비율이 높고, 육서 포유류, 유판속 식물의 약 4할, 과충류의 약 6할, 양서류의 약 8할이 일본 고유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유류로도 일본원숭이 · 족제비 · 일본산양 · 일본다람쥐 · 일본 하늘다람쥐 · 일본비단털들쥐 · 오키나와가시쥐 · 겨울잠쥐 · 아마미노혹토끼 · 산토끼 등 많은 일본 고유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예분금매화 *Trollius ledebourii var. polysepalus*

일본에서는 최북단의 섬인 레분토우에만 분포한다. 6월쯤에 등황색~등적색의 사랑스러운 꽃을 피우는 미나리아재비과의 식물. 고산식물 군락을 구성하는 초본의 하나.



풍부한 자연이 펼쳐져 있는 홋카이도에는 대륙과 이어졌던 역사를 반영하여, 에조불곰, 에조들꿩, 북방도룡뇽, 이토우 등 혼슈 이남쪽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물수리, 바다표범 등이 북쪽 지역에서부터 건너옵니다.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혼슈에서는 고산대나 아고산대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 낮은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위도에 특징적인 생물

#### ▶예분꽃고비 *Polemonium coeruleum ssp.*

홋카이도의 가라후토꽃고비 종, 레분토우의 것은 꽃차례가 짧고 꽃이 빈틈없이 자라는 것으로부터 꽃고비로 구분된다. 꽃고비과.



#### ◀에조의 바늘꽃

#### *Anemone narcissiflora var. sachalinensis*

고산대의 습한 초원에서 자라며 하얀색의 꽃을 낸다. 보다 남쪽에서 자라는 바람꽃과 근연종으로 토후쿠지방 북부, 홋카이도에 분포한다. 미나리아재비과.



#### ▲찰수리 (env VU IUCN VU) *Haliaeetus pelagicus pelagicus*

오후초크해 연안 지역에 서식하는 바다수리로 일본에는 겨울에 주로 홋카이도에 건너온다. 근년에 행해진 조사로부터 참수리 전체수의 약 반에 해당되는 2500 마리 정도가 일본에서 월동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 ▶두루미 (env VU IUCN EN) *Grus japonensis*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에 분포하며,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동부에 새새로써 번식하고 있다. 한때는 멸종했다고 생각되고 있었지만 쿠시로 습원에서 재발견되어 겨울철의 먹이 공급 등 보호처치의 결과 현재는 약 1000 마리 까지 회복하고 있다.



## 웅대한 대지를 뛰어 다니는 생명 북쪽에 사는 생물



### 계절에 따라 건너오는 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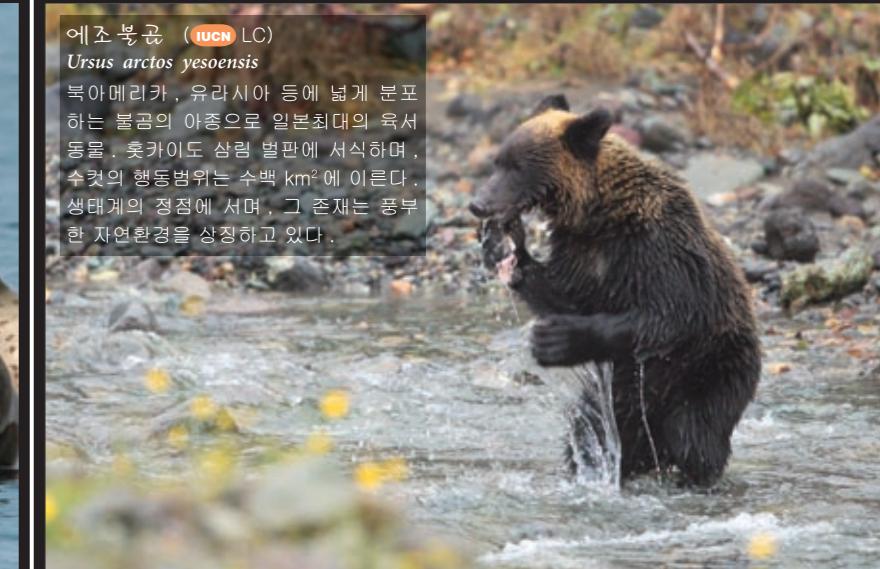
#### ▶간검박이목범 *Phoca largha* (IUCN LC)

오후초크해, 베링해 등에 분포하며, 일본에서는 겨울에 많이 볼 수 있다. 유빙이 훗카이도 동부에 출현하는 2월에서부터 4월에 걸쳐서는 출산도 관찰된다.

### 혼슈 이남에는 볼 수 없는 생물

#### ▶에조 불곰 (IUCN LC) *Ursus arctos yesoensis*

북아메리카, 유라시아 등에 넓게 분포하는 불곰의 아종으로 일본최대의 육서동물. 홋카이도 삼림 벌판에 서식하며, 수컷의 행동범위는 수백 km<sup>2</sup>에 이른다. 생태계의 경점에 서며, 그 존재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상징하고 있다.



#### ◀에조 쟁무늬다람쥐 (env DD IUCN LC) *Tamias sibiricus lineatus*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분포하는 줄무늬다람쥐의 아종으로, 홋카이도 및 조구도, 사할린에 서식한다. 지역에 구멍을 파 음식물을 저장하는 습성이 있으며, 추위가 심한 겨울에는 땅 속 땅굴에서 겨울잠을 잔다.



#### ▶에조우는 톱끼 (IUCN LC) *Ochotona hyperborea yesoensis*

대륙과 육지가 이어져 있었던 빙하기에 홋카이도에 건너온 빙하기의 유종종. 초식으로 초본외에 양치, 이끼, 버섯등도 먹는다.



#### ◀북방여우 (IUCN LC) *Vulpes vulpes schrencki*

유라시아의 대부분에 분포하는 붉은 여우의 아종으로 홋카이도에만 서식하며, 혼슈 이남에 서식하는 아종인 일본여우보다 약간 크다. 주로 들쥐나 작은 새, 곤충을 잡아먹는다.



#### 레드리스트 (RL) 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env (환경성판 RL) 일본국내의 서식 상황을 평가한 것

IUCN (IUCN 판 RL) 세계 전체의 서식 상황을 평가한 것

• EX (멸종) ..... 이미 멸종되었다고 생각되는 종

• EW (야생멸종) ..... 사육, 재배하에서만 존속하고 있는 종

• CR (멸종위기 IA 류) ..... 극히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멸종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종

• EN (멸종위기 IB 류) ..... IA 류 정도는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멸종의 위험성이 높은 종

• CR + EN (멸종위기 I 류) ..... 멸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종 env 만

• VU (멸종 위기 II 류) ..... 멸종의 위험이 증대하고 있는 종

• NT (준멸종 위기) ..... 현시점에서의 멸종 위험도는 적지만, 서식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멸종 위기」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종

• LC (저염려) ..... 서식개체 수가 많은 등, 상기의 카테고리의 어느 기준도 만족 시키지 않는다고 평가된 분류군 IUCN 만

• DD (정보 부족) ..... 평가할 만한 정보가 부족한 종

주 : 환경성판 레드 리스트에는, 부속 자료로서 「멸종의 우려가 있는 지역 개체군」을 게재하고 있다.

# 깊은 숲에 안긴 장엄한 생명 산에 사는 생물



검독수리 (env EN IUCN LC)  
*Aquila chrysaetos japonica*

일본 최대의 맹금류로 날개를 펼치면 2m를 넘는다. 토끼나 조류, 파충류 등을 잡아먹으며, 높은 산에서부터 낮은 산까지의 산지를 넓게 이용 하지만 분포는 국소적으로 서식하는 수는 적다.

일본 열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산들. 산에서 자라는 식물은 위도와 표고에 따라, 눈잣나무 군락이나 초원, 침엽수림, 낙엽활엽수림, 상록활엽수림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리고 식생의 변화에 따라, 집이나 먹이원으로서 식물을 이용하고 있는 동물상도 변화합니다. 산의 풍부한 동식물은 일본의 생물의 다양성, 이를테면 가옥의 뼈대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 고산에 하는 생물

일본뇌조 (env VU IUCN LC)  
*Lagopus mutus japonicus*

북반구의 극지방 주위에 분포하는 뇌조의 최남한의 아종이다. 혼슈의 표고 2400m 이상의 산악지대에서만 서식하는 빙하기의 유존종이며, 옛날에는 산악지역의 신양에서 신의 사자로 여겨졌다. 연간을 통해 눈잣나무대와 고산초원을 이용하며, 겨울에는 전신의 날개가 하얗게 된다.



▼일본산양 (IUCN 보전 \* 낡은 카테고리에의 한분류)  
*Capricornis crispus*

대표적인 일본 고유종의 하나로, 낙엽활엽수림을 주된 서식 장소로 하며, 바위가 많은 곳에서도 쉽게 행동한다. 한때는 멸종이 염려되었지만 보호에 의해 안정된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까락딱따구리 (env VU IUCN LC)  
*Dryocopus martius martius*

홋카이도와 토호쿠지방의 일부에 분포하는 일본최대의 딱따구리. 분비나무와 신갈나무의 혼효림, 너도밤나무 숲 등 원시림에 서식한다. 적색의 머리부분 이외에는 검다.

## 조업수림 낙엽활엽수림에 사는 생물



▲황금새 (IUCN LC)  
*Ficedula narcissina*

홋카이도부터 큐슈까지는 여름철새, 그보다 남쪽에서는 텃새로서 서식한다. 지저귐은 아름다우며 변화가 풍부하다. 수컷의 체색은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콘트라스트가 아름다우나 암컷은 갈색.



▲황여새 (IUCN LC)  
*Bombycilla garrulus centralasiae*

겨울철새로서 전국에 도래하나, 해마다 수의 변동이 크다.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며 주로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뜻어리에 눈에 띠는 관모를 가진다.



▲일본원숭이 *Macaca fuscata* (IUCN DD)

원숭이류 중 세계에서 가장 북쪽까지 서식할 수 있는 일본 고유의 종. 낙엽활엽수림에서 조업수림까지 서식하고 있다. 농업에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으며, 앞으로의 보호관리가 문제이다.

## 임상에 사는 생물

▼아즈마두꺼비 *Bufo japonicus formosus*

혼슈 중부보다 동쪽과 홋카이도의 일부에 분포하는 대형의 두꺼비. 산란기에는 많은 수컷과 왕컷이 모여 '두꺼비 접전'이 벌어진다. 중부보다 서쪽으로는 다른 아종인 일본두꺼비가 분포한다.



◀공작고사리 *Adiantum pedatum*

일본에서는 북해도~혼슈의 각지, 시코쿠, 큐슈의 일부의 산림지에서 자란다. 일본명은 잎사귀를 공작이 날개를 펼친 모습에 비유하여 명명하였다.



▼애기붕 은춰 *Apodemus argenteus* (IUCN LC)

홋카이도부터 큐슈까지 넓게 분포하는 소형의 쥐로 일본 고유의 종. 본종을 시작으로하는 산림성의 들쥐는 도토리 등의 먹이를 자연에 물어서 저장하는 습성이 있으며, 잊혀진 도토리로부터 다음 세대의 숲이 만들어진다.



▲봉나무버섯 *Armillaria mellea*

일본 전 국토에서 편법하게 볼 수 있는 균류로 여러종류의 동류가 있다. 균류는 고목이나 낙엽, 낙지등의 유기물을 분해하여 산림생태계의 물질 순환을 유지하고 있다.

## 논에 사는 생물

###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frontalis* (env NT IUCN LC)

겨울철새로서 주로 일본 북부에 국지적으로 도래한다. 넓은 호수와 늪 등에서 휴식을 취하며 논 지대에서 이삭이나 수초의 잎이나 줄기 등을 먹는다. 농촌환경에 적응하는 대형 조류이다.



### ▲물장군 (*Lethocerus deyrollei*)

일본최대의 수생 곤충. 큰 낫 모양의 앞다리에 의해 작은 물고기나 개구리 등을 잡아 먹는다. 한때 농약에 의해 멸종에 직면했으나 근년에 각지에서 회복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 ▲애벌딧불이 *Luciola lateralis*

겐지반딧불이와 함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발광곤충. 야간에 빅부 말단을 발광시켜 빛의 신호로 교신한다. 논이나 습지의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서식한다.



### ▲먼등계

#### *Taraxacum platycarpum*

칸토우 지방부터 중부 지방의 동부에 있는 고유종. 일본에는 20 종 정도의 민들레가 분포하나, 서양민들레 등의 외래종과의 교잡도 일어나고 있다.

## 우리들의 생활과 공생하는 생명 마을에 사는 생물



### ▲송사리 *Oryzias latipes* (env VU)

일본의 마을 환경을 대표하는 물길이 4 cm 정도의 담수어. 눈이 크며, 머리부분의 상단에서부터 뛰어나온 것이 이름의 유래. 속명 Oryzias는 「벼」에서 유래한다.

### ▲일본청개구리 *Hyla japonica* (IUCN LC)

일본 국토 전체에 넓게 서식하며, 일본인에게 있어 많이 익숙한 생물의 하나. 평지나 언덕에 살며, 낮은 나무나 풀 위에서 생활한다. 비가 오기 전에 개굴개굴하고 잘 운다.

## 잡목림에 사는 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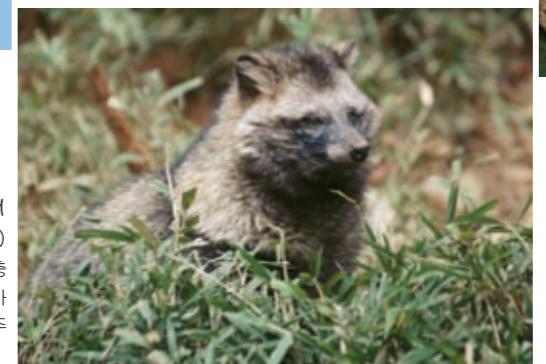
### ▼황새매 (*Butastur indicus*)

여름철새로서 흔슈 ~ 큐슈에 날아오며, 남서제도에서는 활동을 한다. 중형의 매로 봄가을의 이동기에는 무리를 만든다. 특히 그늘에는 이라고 (伊良湖) 곶 부근에 집결하여 큐슈의 사타(佐多) 곶을 통과하는 큰 무리가 관찰된다.



### ▲양오색나비 *Sasakia charonda charonda* (env NT)

동아시아에 분포하며 일본에서는 훗카이도 남부보다 남쪽에 서식하는 대형의 네발나비. 수컷의 날개는 아름다운 보라색. 꽃의 꿀이 아닌 활엽수의 수액을 빨아 텃세권을 형성한다. 국립.



### ▲메쿠리체모나투스 사슴벌레

#### *Lucanus maculifemoratus*

궁뚝나비 *Minois dryas bipunctata* 장수풍뎅이 *Allomyrina dichotoma*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는 큰 뿔이나 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을 포함한 애호가에게도 인기가 높다. 잡목림에서는 수액을 구하기 위해 이들 곤충류가 많이 모인다. 근년에는 해외산의 종이 다수 수입되었으며 야외에서의 교잡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네가래 (*Marsilea quadrifolia*)

수생양치식물의 1종으로 한때는 논잡초라고도 알려져, 극히 평범한 종이었다. 현재에는 제초제등의 영향으로 논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 ▲연례지 *Erythronium japonicum*

#### 기후나비 *Luehdorfia japonica* (env VU IUCN 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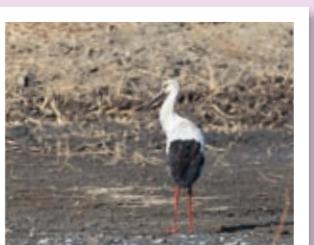
얼레지는 옛날 나라 시대의 만요우슈(万葉集)에도 나온 친숙한 꽃. 기후나비는 일본 고유종으로 계통적으로 오래된 호랑나비의 1종. 둘다 봄에만 모습을 보인다.

## Column

### 논의 멸종 위기종

현재의 논은 한때의 대량의 농약살포나 밭의 정비등의 영향으로 생물 다양성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물장군이나 물방개, 송사리나 네가래 등 지금까지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많은 생물들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 넓게 서식하고 있었던 황새나 따오기도 한때 야생에서는 멸종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 인공번식에 성공하여 현재 효고현의 토요시마시에서 황새, 니이가카와 사도시에서 따오기의 야생복귀 프로젝트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들을 정점으로 한 논의 생태계의 재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터전에 있어서의 대형 조류의 야생복귀의 시도는 세계에서도 선진적인 사례입니다.



### ▶황새 *Ciconia boyciana*

일본은 비가 많은 나라입니다. 산에 내린 비의 대부분은 강을 타고 나려와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일부는 숲에서 흡수되어 오랜 시간을 거쳐 땅 위로 스며나와 강이나 농, 습지 등의 다양한 물가의 환경이 형성됩니다. 또한 일본의 연안부에는 하천에 의해 윤반된 토사가 퇴적되어 생긴 크고 작은 간식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풍부한 물이 만들어낸 수변 환경에 길러져서, 생물들은 각각의 장소에서 독자적인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간식지에는 갯지렁이 등의 저생생물을 구하러 많은 철새들이 월동이나 중계를 위해 세계각지에서 건너옵니다.



## 풍부한 물이 자아내는 빛나는 생명 수변에 사는 생물

### 하천에 사는 생물

#### ▼은어 *Plecoglossus altivelis*

성장함에 따라 강과 바다를 왔다 갔다하는 회유성의 한 해살이 물고기. 가을에 하류역에서 부화한 어린 물고기들은 하구, 연안까지 내려가서 자란 뒤에 상류역으로 거슬러 올라와 텃세권을 형성하고 돌의 표면의 불어있는 해조를 먹고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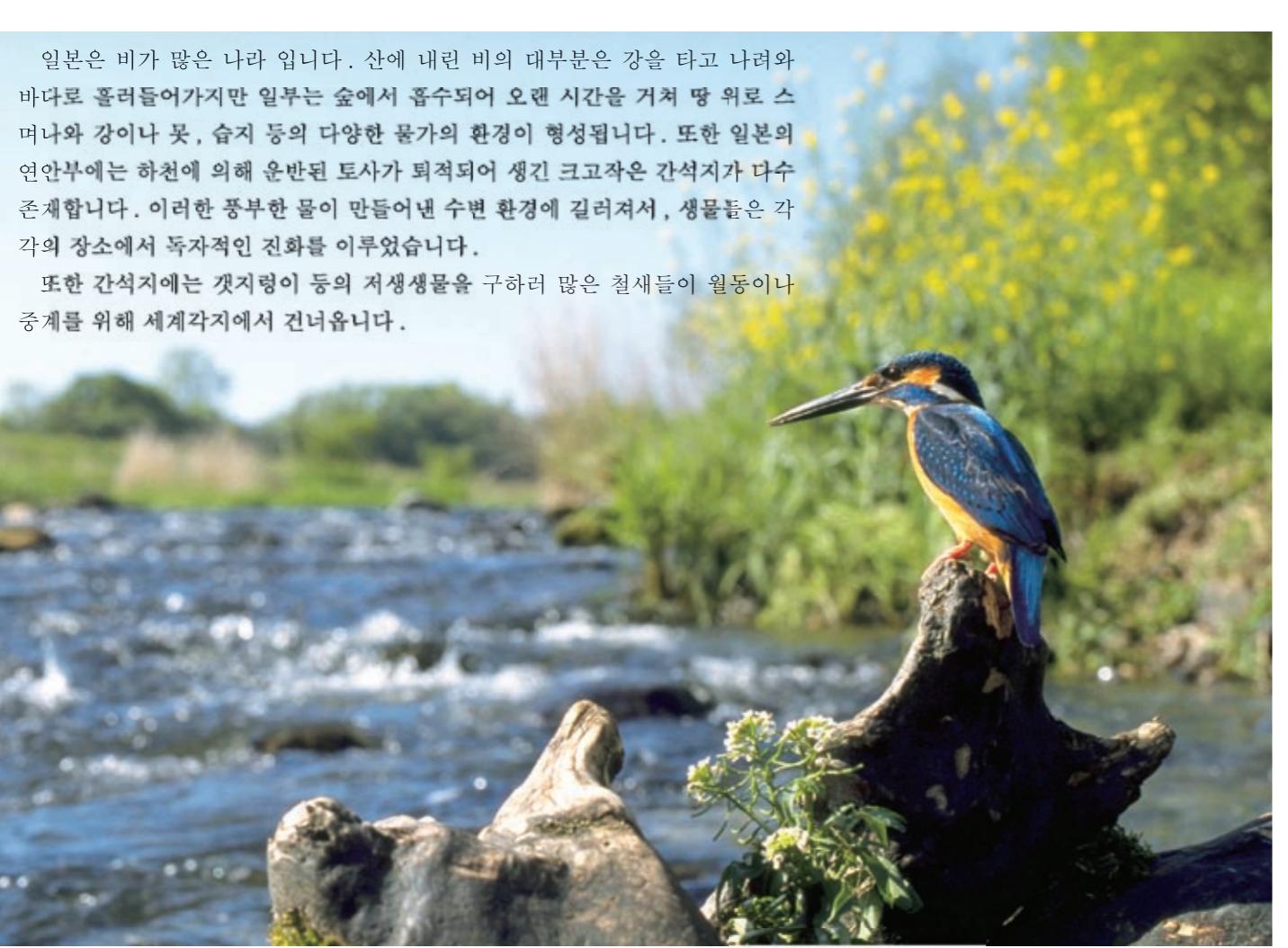


#### ◀이본양도용 농 *Andrias japonicus*

주로 서일본에 서식하는 일본 고유종으로 몸길이 1m를 넘는 세계 최대의 양서류. 장수하며, 삶의 대부분을 수중에서 보내는 것으로부터 서식에 안정된 수질과 수량이 필요하다.

#### ▼이 토우 *Hucho perryi* (env EN IUCN CR)

연해지방, 사할린등에 분포하며 일본에서는 혼카이도 북부~동부에 서식한다. 몸길이 2m를 넘는 기록도 있는 대형의 연어과 어류. 유어는 곤충류를 먹고 성장하고 전장 30cm를 넘을 정도부터 물고기를 잡아 먹는다.



#### ▲물총새 *Alcedo atthis bengalensis* (IUCN LC)

홋카이도~큐슈에 넓게 서식하는 소형의 새. 도시공원의 연못이나 수로에서도 번식하는 등 현재에는 사람의 생활공간에도 적응하고 있다. 광택 있는 청록색이나 오렌지색의 아름다운 색체로부터 「계류의 보석」이라고도 불리운다.



#### ◀이본양도용 농 *Andrias japonicus*

주로 서일본에 서식하는 일본 고유종으로 몸길이 1m를 넘는 세계 최대의 양서류. 장수하며, 삶의 대부분을 수중에서 보내는 것으로부터 서식에 안정된 수질과 수량이 필요하다.

#### ▼이 토우 *Hucho perryi* (env EN IUCN CR)

연해지방, 사할린등에 분포하며 일본에서는 혼카이도 북부~동부에 서식한다. 몸길이 2m를 넘는 기록도 있는 대형의 연어과 어류. 유어는 곤충류를 먹고 성장하고 전장 30cm를 넘을 정도부터 물고기를 잡아 먹는다.

## 습지에 사는 생물 ▼물파초 *Lysichiton camtschatcense*

Honshu's central and northern wetlands where it grows. It flowers from May to July, with large, white, bell-shaped flowers resembling lilies. It is a member of the Araceae family.



#### ▲곤끈이주걱 *Drosera rotundifolia*

A carnivorous plant that grows in wetlands. It has round leaves with red tentacles that catch insects. It is a member of the Droseraceae family.



#### ▲큰방울새 난 (env NT) *Pogonia japonica*

A carnivorous plant that grows in wetlands. It has large, purple flowers that look like bells. It is a member of the Orchidaceae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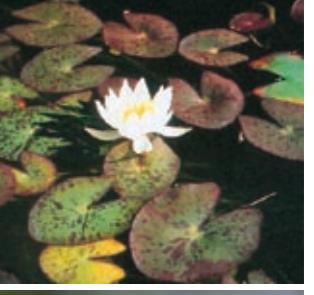
## ▶각시석 날 *Andromeda polifolia*

Honshu's central and northern wetlands where it grows. It flowers from June to July, with small, pink flowers hanging down like bells. It is a member of the Ericaceae family.



## ▶수련 *Nymphaea tetragona* var. *angusta*

Chuukaido ~ Kyushu's wetlands where it grows. It flowers from June to September, with white flowers floating on the water. It is a member of the Nymphaeaceae family.



## ▶작은 등죽실꽃자리 *Cercion sexlineatum*

Tohoku's coastlines where it grows. It flowers from June to August, with small, blue flowers on the water. It is a member of the Cyperaceae family.



## 간식지, 모래톱에 사는 생물



#### ▶帐篷여 (env EN) *Boleophthalmus pectinirostris*

In Japan, it is found along the Ariake Sea and Daisetsu coastlines. It is a bottom-dwelling fish that feeds on the seabed. It is a member of the Gobiidae family.



#### ◀투구게 (env CR+EN IUCN DD) *Tachypleus tridentatus*

Seto Inland Sea and Kyushu's coastal areas where it grows. It is a bottom-dwelling species that feeds on the seabed. It is a member of the Tachypleidae family.



#### ▼도연새, 물떼새 큐

Wetlands and marshes where they breed. They have a long beak and a long neck. They are a member of the Scolopacidae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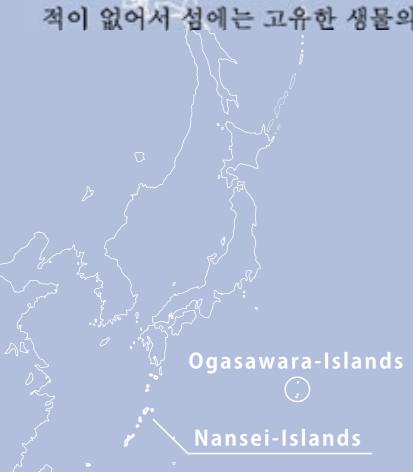


#### ▼붉은바다거북 (env EN IUCN EN) *Caretta caretta*

The majority of its life is spent at sea, but it comes ashore to lay eggs. It is a member of the Cheloniidae family.

# 마파람이 키우는 그곳에만 있는 생명 아열대에 사는 생물

일본의 남서부에 위치하는 오키나와나 아마미 등의 섬들. 그곳에는 아열대의 기후대에 속하여 연안에는 산호초와 홍수림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산에는 구실잣밤나무를 우점종으로 하는 조엽수림이 펼쳐지고 나무고사리등의 아열대지역 특유의 거대한 양치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의 섬들은 기후대에 뒷받침되는 독특한 환경과 혼슈등 보다 훨씬 옛 시대에 대륙과 분단된 지리와 역사가 만나 생물들이 독자적인 진화를 이루는 무대로 되어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의 해상에 떠있는 오가사와라제도는 지금까지 한번도 대륙과 이어진 적이 없어서 섬에는 고유한 생물의 보고입니다.



▶ 쪽등고래 (IUCN VU)  
*Megaptera novaeangliae*

몸길이 12~13m, 체중은 30t 이 달하는 수영 고래의 한 종. 큰 가슴 지느러미를 가지며, 꼬리지느러미의 뒤쪽의 모양에 따라 개체식별을 할 수 있다. 독특한 노래와 호쾌한 점프로 고래구경의 인기종.



▶ 듀공 *Dugong dugon* (env CR IUCN VU)

오키나와 본도 주변에는 열대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듀공의 북쪽 끝의 개체군이 서식한다. 듀공을 인어의 모델이라고도 말해지는 해서 포유류로 말은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를 주식으로 하고 있다.



▶ 만수獭 (env CR IUCN LC)  
*Spilogale cheela perplexus*

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 걸쳐 분포하며 일본에서는 이시가키섬과 이리오모테섬에 톱니로서 서식한다. 눈이나 습지 등에서 뱀이나 개구리, 게 등의 소동물을 잡아먹는다.

◀ 아마미 노축산 토끼 (env EN IUCN EN)  
*Pentalagus furnessi*

아마미 제도 고유의 원시적인 토끼로 뒷다리와 귀가 짧다는 등 특징적인 형태를 하고 있으며, 산림내에서 서식한다. 대록과 육지가 이어졌을 때에 건너와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외래종 등에 의해 멸종이 염려되어, 특히 몽구스의 방제에 힘쓰고 있다.



▶ 이시카와개구리 (env EN IUCN EN)  
*Rana ishikawai*

몸길이 10cm 전후로 녹색과 암갈색의 일루미네이션으로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구리라고 말해진다. 아마미오오시마와 오키나와에 분포하며 주로 숲 속을 흐르는 계류 옆에 서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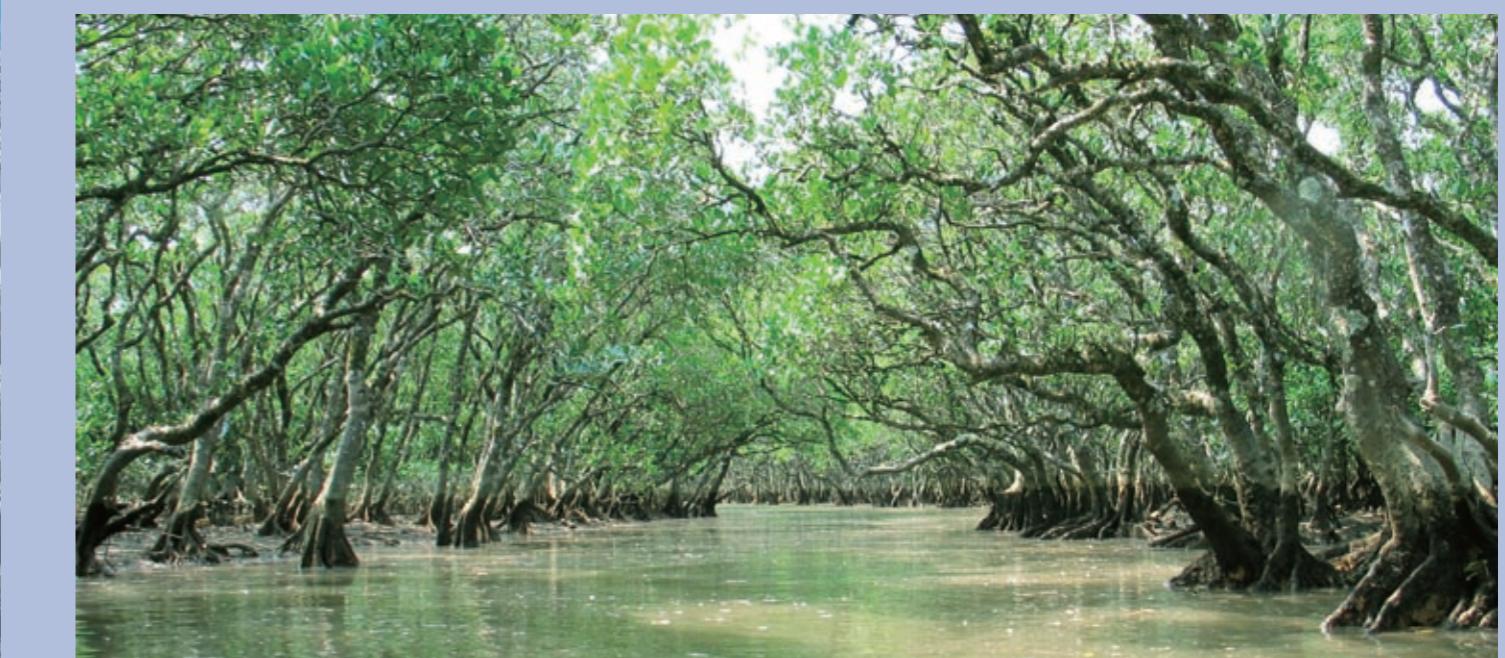
▶ 오키나와암잘다리장수풍뎅이 (env CR + EN)  
*Cheirotonus jambar*

오키나와의 북부 '영바루'의 숲에서 1983년에 발견된 일본 최대의 감충. 오래된 나무의 구멍에 서식한다.



◀ 오가사와라큰박쥐 (env CR IUCN CR)  
*Pteropus pselaphon*

주로 열매 등을 먹는 디형 박쥐. 해양 섬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독자적인 진화를 이루어 남서제도의 큰 박쥐와는 별종으로 구분한다.



▶ 비단뱀 *Protobothrops flavoviridis*  
아마미 제도에서 오키나와 제도에 분포하며 산지에서 민가의 주변에 까지 서식한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쥐를 잡아 먹는다.



# 소중한 생명과의 공존을 향해서.

## 멸종의 염려가 있는 야생생물의 보전

종의 멸종은 생물다양성의 손실에 직결됩니다. 환경성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개발에 따른 서식환경의 악화, 소실과 개체의 포획, 채취, 외래종 등이 원인으로 멸종의 위기에 있는 희소 야생동식물들에 대해 종의 보존법에 의거하여 종 지정에 의한 포획 등

의 규제, 서식지 등 보호구의 지정 등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의 규제, 서식환경의 보전, 복원과 외래종의 방제, 사육과 번식의 추진 등의 보호 중식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체등과 협력하여 행해지고 있는 주된 작업을 소개합니다.

복주머니란속은 아름다운 꽃 때문에 애호가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은 난이다.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 성육지에 있어서 엄격한 보호가 행해지는 외에 조직배양 등에 의한 증식수법의 검토도 행해지고 있다. (env EN)



18세기경까지는 일본 중부에 분포하였으나 메이지시대에 난획 등에 의해 격감하였다. 1999년 이후 중국에서의 개체 제공을 받아 번식이 진행되어 현재는 약 100마리 정도까지 회복. 2008년에는 시험 방조가 개시 예정으로서 서식 환경의 정비 등 야생 복귀를 향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nv EW IUCN EN)



레부루주미나라  
*Cypripedium macranthos* var. *rebunense*



시비울레미  
*Ketupa blakiston* blakistoni

홋카이도의 동부~중앙부에 서식하며, 악개장 180cm에 달하는 세계최대급의 울레미. 인공 새집의 설치와 거울철의 사료 급여 등의 보호 대책이 행해지고 있다. 현재 추정되는 서식 수는 130마리 정도.

(env CR IUCN EN)



18세기경까지는 일본 중부에 분포하였으나 메이지시대에 난획 등에 의해 격감하였다. 1999년 이후 중국에서의 개체 제공을 받아 번식이 진행되어 현재는 약 100마리 정도까지 회복. 2008년에는 시험 방조가 개시 예정으로서 서식 환경의 정비 등 야생 복귀를 향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nv EW IUCN EN)

말조개과의 이마페류에 산란하며, 그 속에서 치어가 성장하는 독특한 생태를 가진 날자루의 한종. 현재 완도(わんど)의 복원과 외래 방제 등에 의한 서식 환경의 개선 외에 수족관 등에서의 사육 번식이 행해지고 있다.

(env CR IUCN VU)

일본의 소형의 도통농류는 각 지역에서 고유의 종분화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종은 가장 서식범위가 넓고, 지하수가 있는 2차 숲 속의 낙엽의 안쪽 등, 특히 한정된 환경에 서식한다. 보호구의 설정, 지역주민들에 의한 보전활동 등이 행해지고 있다.

(env CR IUCN CR)



쓰시마aby  
*Prionailurus bengalensis euptilura*

쓰시마에 서식. 서식수는 100마리 전후로 추정되며 교통하고 방지 대책, 고양이 사육의 적정관리의 추진 등 서식환경의 개선 외에 동물원과 협력한 사육학의 번식이 진행되고 있다. (env CR IUCN LC)



오키나와섬 북부의 '왕바루' 숲에서 1981년에 발견된 일본에서 유일하게 날 수 없는 새. 포식자인 봉구스의 방제, 고양이 사육의 적정관리의 추진, 부상 개체의 보호, 교통하고 방지 등에 대해 사육학에서의 번식의 작업도 개시.

(env CR IUCN EN)



짧은 고리 알바트로스  
(신천옹)  
*Diomedea albatrus*

악개장이 2m를 넘는 태평양 최대의 바닷새. 예전에는 수백만마리가 서식했었으나, 1890년 전후부터 우모 채취를 위해 대량으로 포획되어 격감. 현재는 이즈제도의 조도와 센가쿠제도의 2개의 섬에서만 번식. 조도에서는 번식지 보전과 실물대 모형 설치에 의한 새로운 번식지 형성 사업의 성과 등에 의해 약 2000마리까지 회복했다. 미국과 협력하여 오가사와라 군도의 무코지마(聟島)에 새로운 번식지를 형성하는 작업을 개시. (env VU IUCN VU)

(env CR IUCN NT)



아카가시라후비둘기  
*Columba janthina* nitens

오가사와라 제도에 추정으로 4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삼림성의 새. 야생화한 고양이에 의한 포식, 금쥐와의 먹이의 경합 등 외래종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외래종의 방제, 고양이 사육의 적정관리의 추진 등의 작업에 대해, 동물원에 있어 사육학에서의 번식이 추진되고 있다.

(env CR IUCN NT)

## 사람과 야생조수와의 분리

근년 사슴이나 멧돼지 등 일부의 중·대형 포유류의 개체수와 분포 지역에 빠르게 증가, 확대하여 심각한 농림업 피해와 생태계로의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개체수의 관리와 방호책의 설치, 완충대의 정비 등에 의해 사람과 야생 조수와의 분리가 이루어 지도록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사슴의 (*Cervus nippon*) 분포 추이



멧돼지의 (*Sus scrofa*) 분포 추이



멧돼지 (*Sus scrofa*) 부모와 자식



사슴의 (*Cervus nippon*) 무리 (IUCN LC)

## 외래종 문제에 대한 대응

큰입우럭이나 아메리카너구리, 남서제도에 있어서의 자와몽구스 등을 시작으로해서 그 지역에 본래 없었던 외래종이 전국에서 그 지역 특유의 생태계에 여러 형태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성에서는 생태계 등에 특히 피해

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해외기원의 생물 등을 특정 외래생물로 지정하여, 그 사양, 재배, 보관, 운반, 수입 등의 취급을 규제하는 것과 함께 방제 등도 행하고 있습니다.



큰입우럭  
*Micropterus salmoides*



아메리카너구리  
*Procyon lotor*



자와몽구스  
*Herpestes fjaranicus* (IUCN LC)

## 지구온난화에 의한 야생생물에의 영향

지구온난화의 진행에 의해 생태계의 교란과 종의 멸종 등 생물다양성에 대해 심각한 영향이 생기는 일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산호초에 대해서는 약 1~3°C의 해수면 온도 상승에 의해 백화와 광범위한 사멸이 빈발한다고 예측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산에 서식하는 놀조에 대해서는 년 평균 기온이 3°C 상승할 경우 고산지대의 축소와 함

께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한편 온난화의 영향에 의해 분포가 변화하는 종도 존재하며 큰기러기의 월동지의 북상과 남방계의 나비인 남방공작나비 등이 고위도 지역으로의 정착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珊호초



일본뇌조  
*Lagopus mutus japonicus* (env VU IUCN LC)



남방공작나비  
*Junonia almana almana* (env VU IUCN LC)



큰기러기  
*Anser fabalis serrirostris* (env VU IUCN LC)